'행복' 이라는 마법에 걸리게 하는 책

원제_《동경의 마법사》憧れのまほうつかい
저자_사쿠라 모모코
출판사_新潮社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꿈은 있기 마련이다. 그 시절, 우리들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누구누구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존재했다. 여기, 그 순수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한 권의 책이 있다. 사쿠라 모모코의《동경의 마법사》. 평소 '사쿠라 모모코' 라는 작가와 그녀의 귀여운 그림에 관심을 갖고 있던 데다, 순수하고도 신비스런 제목에 마음이 끌린 책이다.

작가로서 그리고 만화가로서도 많은 사랑을 얻고 있는 사쿠라 모모코. 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한 그림책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그 책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이 세상의 멋진 것을 전부 모아 놓은 그림책이었다."

그 그림책의 작가는 에롤 르 카인. 한눈에 그와 그의 그림에 반해 버린 모모코는 그림에 대한 열정과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가고, 오늘날 인기 만화가가 되는 데 이 작가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사쿠라 모모코는, 정말 그가 없었다면 그녀 자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어느 날 서점에서 그의 작품을 보던 모모코는《유작》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게 되고 에롤 르 카인의 죽음을 알게 된다. 이제 동경의 세계를 그린 '마법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 것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쇼크를 받은 그녀는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그의 고향 영국으로 떠나게 된다. 그 결과,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것.

《동경의 마법사》는 그림책 작가 에롤 르 카인에게 바치는 여행 에세이다.

이 책에는,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에롤 르 카인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여정이 담겨 있다. 비록 생전의 그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소녀 시절 만나게 된 한 권의 그림책으로 시작된 여행…. 사쿠라 모모코 특유의 문체로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에롤 르 카인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배어 있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해주는 소중한 책이다.

작품 곳곳에 자리 잡은 모모코의 일러스트와 '그림에 대한 추억' 이라는 제목의 인터뷰는 우리에게 한층 더 깊은 작품의 묘미를 선사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첫눈에 반했다는, 바로 그 에롤 르 카인의 그림도 실려 있어 모모코가 느꼈다는 그 순수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행운의 기회가 될지도. 또 한 가지…. 모모코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작품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작은 즐거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정낙정 해냄 편집부